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장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부대장병들은 설사 하늘땅이 뒤집히고 세상천지가 열백번변한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한몸이 그대로 충이 되고 폭탄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원수님을 결사보위해갈 충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시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 혁명사적관,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련합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력력히 어려있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부대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전지휘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방어작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였으며 군사연구실, 사격관, 교환근무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역적패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천겁, 만겁의 성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멸적의 의지를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에서 군사연구실을 비롯한 훈련거점들을 훌륭히 구

려놓았을뿐만아니라 올해를 훈련의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훈련혁명 5대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적들의 변화되는 전쟁수행방식에 맞게 능숙히 활용할수 있도록 훈련을 짜고들고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당이 새롭게 밝혀준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에 립각하여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안목과 창조적능력, 배짱과 담력을 완벽하게 소유한 유능한 작전가, 싸움군지휘관으로 준비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맡겨진 임

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일당백의 맹장들로 역세계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틀어쥐고 부대장병들을 사상과 신념, 도덕의 강자로 역세계 키울데 대한 문제, 유사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도록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퇴의 선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불의에 공중강습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할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놓을데 대한 문제, 새로 창안제작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더욱 완성할데 대한 문제 등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당, 수영장, 목욕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초소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뜻깊은 식수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에 도착하시자 나무심기를 진행하던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원아들과 교직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퍼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길이 전하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열

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더욱 북돋아주는 의의깊은 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것인가를 생각하느라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조국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계승자, 팔간들로 자라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서도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나무는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름를 보장할수 있다고, 식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

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며 구덩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나무들이 짝 찼다고, 이제는 식수를 할 자리가 없겠다고, 원아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육이 새겨진 곳들에 찾아가 나무를 심게 하라고, 현대적인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도 참관시키고 과학적인 식수방법도 터득시키라고,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원아들이 산림복구 전투에서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그대로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의 학원, 우리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나의 마음속에

는 언제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원의 원아들이 만경대의 아들답게 역세계 자라나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걱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떨어지기 아쉬워 자꾸자꾸 따라서는 원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창밖으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통일조국으로 이어진 령장의 발걸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판문점을 찾으시어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시고 내외분렬주의세력에게는 파멸의 경종을 울리신 판문점 시찰의 여운은 오늘도 천파만파의 갈기를 일으키며 찾아들 줄 모른다.

다 아느냐와 같이 판문점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살벌한 곳이며 언제 어느 순간에 총포성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최전방이다.

항시 침략과 도발을 꿈꾸는 총구에서 불길이 뿜어져나오는 그 열마였고 돌발적인 사건이 전쟁으로 번져질번 했던 사태는 또 그 열마인지 모른다.

폭약의 도화선, 시한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야말로 격전 전야의 현상이다.

남조선에서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하여 당장이라도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첩에하게 조성되었던 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대국상을 당한 인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던 그 시기 그 무슨 《급변 사태》와 《체제변화》를 떠벌리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적대세력의 기를 꺾어버리시며 그이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은 백두산장군의 드센

배짱과 담력을 시위한 력사의 장거였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은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 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 같다.》고 전하였다.

담력과 배짱은 령장의 필수적자질이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전술의 능수라고 해도 담력과 배짱이 없으면 명장이라 말할수 없다.

하기에 한 군사전문가는 명장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명작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담력과 배짱에 있다고 말하였다.

적들의 총구가 지척인 최전방으로 여유작작하게 나가시고 대낮에 판문각로대우에서 쌍안경으로 남녘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모습은 그야말로 적대세력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천하제일명장의 서리발기상이었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전초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원수님의 그 담대한 기상에서 적대세력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허우적거렸다.

남 조선 언 론 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이 보란

듯이 대낮에 판문점을 시찰하여 쌍안경으로 군사분계선과 분단의 현장을 한참동안 둘러보았다. 그 보도사진을 보며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수가 없었으며 도대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마음엔 어떤 의지, 무엇을 어디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서있는지 감히 추리하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날 원수님께서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명장이 있는 곳에는 승전고가 울리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침략광증을 초강경의 대응으로 무자비하게 다물리는 승리의 퇴성이고 통쾌한 승전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힘있게 선언한 력사적사건이었다.

판문점은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의 불멸의 업적이 안겨오고 그이의 조국통일유훈을 이루시려 현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어려있는 력사의 증거자이다.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시었다.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업적을 추억하시며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었다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대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돌이켜보면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기울이시었다.

언제나 심중에 조국통일문제를 안으시고 어떻게 하나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시려 모든것을 다하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전하는 친필비를 판문점에 세우도록 하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판문

점을 찾으신 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의 통일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립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업적이 응축되어있는 그곳에서 통일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시었다.

판문점에 조국통일을 위한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찰을 통해 겨레는 또 한번의 민족의 령도자를 높이 모신 격정과 환희를 금치 못했으며 온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남조선의 한 정세분석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쪽을 내려다보시었다. 그 엄엄하고도 서리발같이 날카로운 모습에는 분렬주의세력을 용서치 않겠다는 비장함이 력력하였다. 이제 통일은 다 된것이나 같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그 어떤 엄혹한 정세나 반통일의 광풍속에서도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내외에 엄숙히 파시되었고 천출위인을 모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겨레의 가슴속에 더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는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의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반드시 겨레에게 통일을 안겨주시려는 비장한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날로 가증되는 침략광기를 짓누를수 있는 막강한 핵강국의 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고 적대세력이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로선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이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반드시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려는 겨레의 의지도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있다.

통일조국으로 이어진 령장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 온 겨레는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평명한 새날을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업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첫 아침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새해인사를 보내시었다.

조국통일을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제인 내세우시는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온 겨레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

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신년사에 밝히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구절구절들은 새해를 맞이한 온 민족이 들으려야 할 강령적지침이었다.

통일조국에 대한 굳은 확신

결하는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분렬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

명주솜은 겨울에는 따뜻한 감을, 여름철에는 서늘한 감을 주는 명주를 원료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전부터 명주를 짜기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명주솜을 옷감과 이부자리의 재료뿐 아니라 갑옷과 같은 방어장구의 제작에도 리용하였다고 한다.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두툼한 이불을 던지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 누빔기, 넓은 재단탁을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도 현대적이고 능력이 대단하다. 현장이며 제품창고들에 그득그득 쌓이고있는 이불들의 색깔과 무늬 또한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이불의 종류도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 아동이불 등 수십종이나 된다.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명주솜과 비단천을 비롯한 자재도 다 우리의것이다.

이 모든 성과는 공장에

에서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팡팡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명주솜이불포도가 펼쳐지고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비단천위에 아름다운 수를 새겨가는 자수기, 몇초동안

여러가지 질 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 산공정을 꾸릴것을 결심하시며 해당하는 조치를 취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이룩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높이

민을 품에 안아 눈비바람을 다 막아주시고 자신의 천만로고와 헌신으로 엮은 행복의 금방석에 인민을 앉혀주시는 강의하고 고마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은 행복의 길만 걸게 하고 자신은 력사가 기록하지 못한 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시며 천지개벽의 황금같은 열매들을 이 땅이 무겁도록 쌓아주시고도 오히려 인민 앞에서는 자책과 안타까운 심중을 퍼력하시는 너무도 겸허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되는 명주솜이불은 포근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을 어찌 물리화학적성질로만 볼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같이 지켜주시는 행복의 보금자리, 거기서 사는 인민을 따스히 감싸줄 사랑의 손길이기,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것이기에 그리도 포근하게,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명주솜이불, 그 포근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더욱 광범히 연구보급해나가겠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걱정 토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오호하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 위업수행에도 특출한 공헌을 하시었다.

오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는 김정은위원장은 조선 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진두에서 투쟁해나가계신다.

사무국장은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탄생 75돛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에서 그이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정일상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은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으로 향하고있으며 광범한 대중은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주체의 진리를 리득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광범히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위원장에서 건강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계승완성해나가는 기를 절절히 바란다.

본사기자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지난 1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불생산 및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인민들속

안에 두툼한 이불을 던지 게 누벼나가는 다침이불 누빔기, 넓은 재단탁을 연방 오가며 비단천을 규모있게 펼쳐가는 연단기도 현대적이고 능력이 대단하다. 현장이며 제품창고들에 그득그득 쌓이고있는 이불들의 색깔과 무늬 또한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이불의 종류도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 아동이불 등 수십종이나 된다. 이불생산에 리용되는 명주솜과 비단천을 비롯한 자재도 다 우리의것이다.

이 모든 성과는 공장에



여성들의 삶의 화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력사발전에서 노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수수천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긴채 천대와 멸시에 시달려왔다. 오죽하면 유럽의 한 철학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 있게 해준대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겠는가.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속에 3.8국제부녀절이 생겨났고 세계인권선언에 남녀평등에 관한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으며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범들이 채택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남녀불평등과 무권리속에 《인형의 집》의 노라나 《노뜨르담대사원》의 에스메랄다, 《동백꽃아가씨》의 마르그리트와 같은 불행한 처지에서 허덕이고있다.

서방세계가 선진적이라고 자랑하는 여성권리보장제도란 특정한 계층의 여성들과 금권의 뒤받침을 받는 여성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이렇듯 《문명》과 《발전》을 떠들고있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실지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권리보장은 법전우의 법으로만 남아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의 갈피를 보아도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식민지철폐에 얽매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고 너자로 태어난것으로 하여 천대만을 받아야 했던 무권리한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다.

《너 필 종부》, 《삼종지도》, 《칠거지악》과 같은것은 남존녀비의 봉건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열두폭무명치마가 눈물에 다 썩었다는 노래까지 지어 불렀겠는가.

이 가슴아픈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이다.

항일대전의 나날 여성중대를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칠화되었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밝히시고 여성문제해결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조선여성들은 손에

총을 잡고 항일대전에 참가하여 군공을 세웠고 반미대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여성존중의 정치하에서 조선여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절세위인께서 펼치시는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서 105리의 머나먼 마라손주로를 맨 앞장에서 내달려 노도쳐 진군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체육인도, 강의한 조선여성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아

안은 김철의 녀인들도 나왔으며 들끓는 협동벌들과 생산의 동음 드높은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강국건설의 러전을 힘차게 다져온 조선여성모두의 삶이 지켜지고 빛내여지게 되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여성들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빛나고있다.

해마다 어머니날을 맞을 때면 온 나라 어머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여성들을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얼마나 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한명한명의 감나무중대 여성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과 행복속에 울고웃던 여성군인들의 모습.

새 집을 받아안은 한 직포공의 집을 친부모들보다 먼저 찾으시여 한식술처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여성방직공들과 제사공들을 위한 최상급의 합숙들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생활의 보금자리에 든주 인공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시여 사랑의 연희도 마련해주신 감동깊은 사실들, 새로 건

설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이 나라 여성들은 남성들과 어깨 나란히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고 있다.

녀자축구선수들은 새로운 축구신화를 창조하며 훈련길을 쉬임없이 달리고있으며 여성스피드스케이팅선수들은 성스러운 조국수호의 항로우에 애국충정의 비행운을 새기고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길우에도 재능있는 여성과학자들이 서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한 유럽의 한 여성인사는 다시 태어나고싶다고, 공화국이야말로 여성의 권리가 참담게 보장되고 여성의 존엄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여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라고 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너성은 꽃이라네》, 《사랑하시라》, 《우리 집사람》과 같은 여성의 노래들이 어디서나 들려온다.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날들리우는 조선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찬과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화원을 펼쳐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여성들의 모습에 비친 사회상

민체육인으로, 로력혁신자로 삶을 빛내이는 여성들, 그들의 웃음속에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있다.

가는 곳마다 탁아소와 유치원,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 식료품가공기지, 급양봉사망들이 꾸려져 가정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에서 여성들모두가 무상치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지난날 봉건의 질곡속에 신음하면서도 항변한 마디 못하고 살아온 조선여성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품속에서 사회

의 당당한 주인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하기에 얼마전 공화국을 방문했던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여성은 값높은 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빛내여가는 공화국여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값높은 삶을 향유해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되었다. 듣기에도 처음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벌써 70여년전에 채택되고 지난날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 오던 조선여성들이 오늘 국가와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이 나라야말로 여성들의 천국, 여성들의 락원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준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여 누구나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으로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것은 아니다.

《오늘도 집에 오니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시꺼먼 때가 들어붙은 부엌, 식구끼리 오손도손 함께 밥을 먹은지가 까마득하다. 여전히 엄마는 문을 꼭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틀거리는 엄마에게선 항상 술냄새가 났고 어쩌다 마주치면 술을 찾는데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닌다. 나를 사랑해주던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잃은지 오래다.》

이것은 어머니가 알콜중독자인 남조선의 어느 한 중학교학생의 하소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술취한 엄마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어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

고있다. 인간세상에서 어머니만큼 다정하고 따뜻한 존재는 없다지만 어찌하여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고상한 삶을 포기한채 절망과 타락의 나락에서 몸부림치고있는것인가.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여성인권유린사회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차별되고 버림받고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남조선에서 여성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도 여성취업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로동자이다. 여성로동자들의 70%는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상태에서 일하고있다. 남조선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있다.

어느 한 국제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조선 여성들이 법적, 사회적지위문제에서 가장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임금과 취업 등에서도 가장 큰 차별을 당하는것으로 평가하였다.

생활의 모든 꿈을 잃고 비참한 인생행로를 걷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여성지위가 세계최하위인(한국)》, 《여성차별의 세계적교실》, 《손상되는 여성존엄》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로 하여 사회적 난문제들이 끊임없이 산생되는 현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여성들의 생지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시 초

내 나라의 여성들

김영일

방직공의 손

해빛밝은 일리에
가없는 직기바다
흰머리수건을 쓴 방직공
만리마를 타고 달리네

바다우를 나는 갈매기의 나래처럼
이런가
직기의 동음에 맞추어
기대사이를 돌고돌며
잡싸게 고운손 놀리는 방직공

그대의 손에서
떨기떨기 목란꽃이 피어나고
진달래가 망울을 터치누나
화창한 봄날이 펼쳐지누나

정갈한 눈이 내렸나
하얀천우에
그대의 손은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듯
새들이 날고 꽃들이 웃네

아이들을 애무할 때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
직기를 날아돌며 천을 짤때는
행복의 부를 창조하는 근로자의 손

아 그것만이 아니라네
그대는 어느나 방직공녀인이여
그대의 손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힘을 가지고있는지

그대는 인민이 선정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나라의 정사를 결정하는
근로하는 인민의 대표들
그대는 그들중의 한사람이라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도로관리공녀인을
사람들 즐겁게 출근길 오르라고
이른아침 청소차를 몰아갑시다

이 시간이면
집집의 녀인들
거울앞에 앉아 몸단장하련만

거리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밝아진 거리
꽃물결이 흘러갑니다
조용히 웃음지으며
청소차옆에 서있는 녀인

지나가던 사람들
녀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머리숙여 인사합니다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식료공장 지배인도

거울같은 도로로
기분 좋게 차를 몰던 운전수들
도로관리공녀인을 향해
감사의 노래처럼 경적을 울립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 거리를 오고가는 사람들
사회와 집단에 바치는 헌신
제일 큰 락으로 안고사는 이 녀인을

수수하고 평범하여도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녀인
그래서 존경합니다
자기들도 그 녀인처럼 살자고

꽃상점에서

오늘은 웬일인가
꽃상점에 남성들뿐이니
싱글벙글 남성들
모두들 고운꽃만 찾네

꽃한송이를 고르며
너도 나도 말들이 많네
—강철이 동문 벌써 이름부터 꽃
과 거리가 멀어
통 꽃을 볼줄 모르거든

판매원치려는 생글거리며
이꽃 저꽃을 내보이는데
강철이라고 불리운 청년 말하네
—그렇것 없이 상점의 꽃을 다 사
자구

동무들이 호응하네

—그 말도 맞아

오늘이야 우리 직장 여성동무들
모두에게 꽃다발을 안겨줘야지

꽃상점은 명철분위기로 흥성흥성
국제부녀절 여성들의 명절
3월 8일 오늘은
꽃상점의 문이 닫길사이 없네

내 나라의 여성들

축하무대입니다
온 나라 여성들 다 울려세우고싶
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대가 너무도 작은걸

무대로 오릅니다
만사람의 아낌없는 축하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여성교수,
박사
협동벌의 관리위원장들이

오릅니다 축하의 단상에
대학의 여성교원들, 여성지배인들
과 함께
농장원, 방직공들
이 나라의 평범한 여성들이

가정에서는 생활의 꽃
일터에서는 창조와 혁신의 꽃
시대가 준 그 이름
만리마기수라고 부릅니다

무대는 작아도
온 나라 축하의 꽃이 다 모여
웃습니다
축하의 노래
축하의 인사 짝 차넘칩니다

오, 그대들이 없다면
가정에는 생활의 웃음이 없고
그대들의 역할이 없다면
시대의 한쪽바퀴는 전진하지 못하
리니

인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여성들이여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시라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불벼락 뿐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의 북침전쟁연습사동에는 남조선장검 미군과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미군병력, 남조선군과 여러 추종국가병력을 포함하여 레년에 없이 방대한 침략무력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판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동지를 틀고있는 《B-52》, 《B-1B》를 비롯한 핵전략폭격기들과 주일미군기지에 도사리고있는 스텔스전투기들인 《F-22》, 《F-35B》,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 호, 서태평양수역을 돌아치고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 등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대대적으로 출어돌게 된다고 한다.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기동전개된 미국의 수많은 살인작전집단들과 핵타격수단들이 북침공격을 위한 출발진지에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지금 내외호전세력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그 실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지어 호전세력들은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4D작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 《싸드》 배비를 가장

한 훈련까지 실시할것이라고 뼈저리게 공표하였다. 나아가서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 미사일기지에 대한 《예방적선제타격개념》을 적용한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을 벌리며 《전시상황》을 정리하는 《안정화작전》까지 일정에 포함시켰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불장난사동이 미국이 지난해말부터 남조선에 600만(이상의 탄약과 장비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최근 남조선강철 미군가족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체류자들을 긴급대피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감행되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있다.

용근 한계 전쟁을 치를 병력과 핵무장장비가 동원되어 벌어지는 이번의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내외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실전에 그대로 응용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쑥대우에 오른 민중이마냥 기고만장하여 허장성세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금 공화국군대와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공화국의 문전앞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위협천만만 북침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해나선 이상 말로가 아니라 초강경행동으로 맞서나갈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는 내외호전세력들은 저들의 무모한 전쟁소동이 조선반도와 지역에 초래할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합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선제타격은 그 누구의 특허품이 아니며 핵도 전매품이 아니다.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가지고있어야 할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평화의 지적인 노력과 인내심을 나약성으로 오관하고 침략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결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다.

공화국군대와 인민이 치르고 있는 반미대결전은 침략의 원흉인 날강도 미국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상전을 등에 업고 분수없이 날뛰는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북침전쟁에 날뛰다 제명을 다 못한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위협하고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할수록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초강경대응도 더욱더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합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대결광들이 푸젠성에서 또 한번 대대적

최근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되는데 질겁한 남조선통치배들이 외세의 반공화국대결공조강화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며칠전 남조선당국은 미국, 일본의 6자회담수석대표들과 그 무슨 3자협의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북의 핵 및 미사일, 화학무기위협》을 운운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대응》에 대해 모의하였다.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의 매국반역책동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찍하면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하루가 멀다하게 외세와 마주앉아 《대북공조강화》를 추구하는 불순한 모의판들을 벌려놓고있다.

이번에 열린 미, 일, 남조선6자회담수석대표들의 3자협의회의는것도 상전과 주구들 사이에 분주스럽게 벌어지는 반공화국속덕공론의 한 실례일뿐이다.

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공화국의 군력강화는 철두철미 날로 가중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북침전쟁위협과 핵공갈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것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합법적인 주권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질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정당한 군사력강화조치에 대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미친듯이 헐뜯으며 미일상전들의 옷설에 매달려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강요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력강화조치에 화들짝 놀라 미일상전들의 사라구니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허둥대는 남조선통치배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로 리성을 완전히 잃은 미치광이들의 부질없는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 《인권》모략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유엔인권리사회 제34차회의에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실례》에 대해 《증언》하는 놀음을 벌리며 외세와 작당하여 《북인권결의안》이라 하는것을 또다시 채택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가장 참담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밖에 없다.

인간중심의 정치아래 인민의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실현되어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세세년년 꿈으로만 그려보았던 행복의 무릉도원이 활짝 꽃피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 보나, 국가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로 보나 공화국에서 《인권문제》라는것이 영

원히 있을수 없다.

세계최악의 가장 험악한 인권유린지대는 외세가 판을 치고 반역통치배들이 인민우에 군림하고있는 남조선이다.

《정권》은 있어도 자기 인민이 아니라 외세를 섬기는 《정권》이고 권력도 사대매국노들의 특권적지위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남조선은 날이 갈수록 수천만 근로대중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인권수렁지대로 화하고있다.

더우기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의 파쇼, 반인권독기가 물안개처럼 뒤덮여 단애의 지옥과 같이 변해버린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 《끝장내자. 박근혜집권 4년》을 웨치며 련일 벌어지고있는 각종총과 인민들의 초분투쟁은 인권의 황무지, 민주의 폐허지대로 전변된 남조선의 현실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은 남조선땅을 사람 못살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범죄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락원과 지옥도 분간못하는 천하백치의 너두리이며 세상을 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으며 반공화국압박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정체는 다시금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의 도수를 높여 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남조선통치배들의 발악이 악랄해지고있다는 자체가 공화국이 승리하고있다는 명백한 증명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조선의 군부세력들이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싸드》를 하루빨리 퍼우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알려진것처럼 2월 28일 남조선군부는 롯데그룹과 성주팔프장에 《싸드》를 배치하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용부지를 롯데그룹에 이전하는 맞교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롯데그룹은 저들의 팔프장을 《싸드》배치지로 내주게 되면 주변나라의 제재로 기업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것으로 하여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추동을 받은 남조선의 군부가 성주팔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강박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팔프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남조선군부는 1~2개월동안 성주팔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부지의 주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운영되고있는 4개의 《싸드》포대중 1개를 넘겨받아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군부세력들은 성주팔

전세력의 망동은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자살적행위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싸드》가 공화국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에 따른것이라고 광고하지만 그것은 한갓 민심기만공이고 꾀변이다. 사실상 《싸드》는 검증

주변 국들속에서 만약 《싸드》가 실제 배치된다면 남조선의 성주는 자기 나라들의 전략핵미사일부대인 로켓군

의 타격목표가 될것이라는 강경어조들이 쏟아지는 속에 그 나라들에서 활동하고있는 남조선의 기업들이 상품불매운동으로 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돌격대가 되어 령토도 서슴없이 침략기지로 내맡기는 사대매국노들의 망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국적불명의 미사일의 세례를 받을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싸드》배치망동이야말로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격의 어리석은 놀음이다.

경제와 민생, 안보에 돌이킬수 없는 재난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 뻔한데도 미국상전을 위해 《싸드》를 기어어 끌어들이려고 하는 남조선의 친미역적들이야말로 박근혜와 함께 당장 저승에 보내야 할 최악의 무리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미국 제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기

도 안된 무기체계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본토는 물론 태평양상의 판도에 《싸드》를 배치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으로 《싸드》배치를 확대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명실공히 미국의 《싸드》가 단순히 공화국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의 《싸드》배치놀음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의 파국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변나라들의 커다란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주변 국들속에서 만약 《싸드》가 실제 배치된다면 남조선의 성주는 자기 나라들의 전략핵미사일부대인 로켓군의 타격목표가 될것이라는 강경어조들이 쏟아지는 속에 그 나라들에서 활동하고있는 남조선의 기업들이 상품불매운동으로 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돌격대가 되어 령토도 서슴없이 침략기지로 내맡기는 사대매국노들의 망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은 국적불명의 미사일의 세례를 받을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싸드》배치망동이야말로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격의 어리석은 놀음이다.

경제와 민생, 안보에 돌이킬수 없는 재난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 뻔한데도 미국상전을 위해 《싸드》를 기어어 끌어들이려고 하는 남조선의 친미역적들이야말로 박근혜와 함께 당장 저승에 보내야 할 최악의 무리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천년속적이 호통친다

3.1인민봉기 98돐을 계기로 남조선 각계에서 반제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 높아가고있는 지금 불법비범의 《위안부합의》리행을 강박해나서고있는 일본과 그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소녀상설거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오만무례한 책동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요구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사회할 생각이 될 끝말씀도 없다.》느니,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느니 하고 내놓고 호통을 쳐대면서 압을 가하고있는 형편이다.

라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죄악을 들뢰운 일제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의 상징으로서 섬나라오랑캐들의 과거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려는 우리 겨레의 반일의지를 반영하고있다.

하다면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일본반동들이 어떻게 저렇듯 기세등등해서 날뛰게 되었는가.

바로 얼빠진 남조선당국이 일본과 매국배적이며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를 이루고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을 팔아버렸기때문이다. 하기야 원래 친일의 뿌리에서 돌아난 독버섯과도 같은 박근혜 《정권》이고보면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일제의 가장 추악한 반인륜범죄를 비호두둔하고 일본이 운운하는 《군위안부문제》 최종

적, 불가역적결》에 맞장구를 쳐주다 못해 박근혜보수패당은 일본군성노예범퇴기록물의 유네스코 등록까지 로골적으로 방해하였다.

꼬리를 낫추는 개앞에서는 고양이도 으쓱해진다고 이런 비루먹은 개무리들앞에서 일본이 호통을 쳐대는것은 당연하지 않는다.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한 인간오물—박근혜의 탄핵이 남조선에서 기정사실

화되고있는 지금 일본은년의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성노예문제를 완전히 백지화하려고 강도적요구를 계속 들어내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보수패당은 이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도 벅긋하지 못하고 얼마전에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철거를 강요하는 비공개공문이라는것을 발송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러 또다시 민심을 격분시켰다.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아 더러운 명줄이 끊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일본의 날강도적요구에 굴종하여 극악한 친일매국행위에 미쳐 돌아치고있는 박근혜역적패당이야말로 조선민족이기를 그만둔 현대판 을사오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각계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하여 백기투항하였다.》, 《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고 온 겨레도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현실은 박근혜보수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최악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는 힘

남조선에서 해를 넘겨가며 몇달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탄핵 열차가 종착점을 가까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본론이 있었으며 앞으로 며칠내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

지금 남녘의 대세는 박근혜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도 다르게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박근혜를 다시는 솟아날수 없는 파멸의 함정으로 깊숙이 몰아가고 있는 결정적 힘은 어디에 있는가.

초불민심의 힘

이미 수개월전에 특등범죄자인 박근혜에게 정치사형선고를 내리고 지금 이 시각 탄핵과 법적정벌의 마지막장정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주되는 힘은 초불로 상징되는 민중의 힘이다.

한두개의 초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초불이 열백이 되고, 만, 10만, 100만이 되어 타오르면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며 그 불길은 독재의 아성

도 집어삼키게 된다. 지금 남조선에서 초불은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으로 되고 있다.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힘으로 되고 있다. 연 수개월째 18차를 기록하며 즐기게 타오르는 초불의 힘에 의해 결국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특검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가며 오늘에 이르러 있었다. 남조선의 무조건적인 탄핵과 응당한 법적정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에 어긋나는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끝까지 탄핵시키겠다고 마음들을 버리고 있다.

박근혜 퇴진과 어둠이 없는 밝은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수개월째 혹심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불광장에 너도나도 달려나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기에 오늘에 와서 최후발악하는 어둠의 세력

에 의해 불의와 온갖 악의 대명사인 박근혜가 탄핵을 모면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사형선고를 내린 박근혜를 이제 되살린다는 것은 무서운 바다의 격랑을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진실의 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남조선의 초불집회장들에서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각계층 인민들의 웨침이다. 거짓은 그 무엇으로도 통할수 없고 력사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거짓은 패하고 진실은 승리한다.

남조선에서 모두의 원성과 배격을 사고있는 박근혜는 거짓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자기의 온갖 범죄행위들을 마지막까지 부인하며 거짓말로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

은 죄를 책에 적어 쌓으면 하늘에라도 닿으리만 천하악녀는 눈섭 하나 까딱 안하고 그 모든 죄악을 그 누군가의 《거짓말로 쌓아진 커다란 산》이라 하며 첩면피한 녀두리를 늘어놓았었다.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보낸 최후진술이라는데서도 또 다시 거짓과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준 청와대악녀이다. 그 황당하고 불법 무도한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는 없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진실이다. 남녘의 수백수천만 인민들은 그 누구의 선동에 의해 초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탄핵을 웨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수 없는 파초와 부패, 반인민적악정의 몸서리치는 4년의 총화에서 기초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며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박근혜의 온갖 죄악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터져오르고 있는 분노와 배격의 목소리들이다. 《이제 나라.》 하는 모두의 입에

서 터져나오는 이 한마디의 절망과 개탄, 분노의 말속에도 박근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이 드러나 있다.

진실은 감출수 없고 죄악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박근혜의 만고죄악은 날이 드러나 더 론할 여지도 없게 되었다.

특검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의 일부만 가지고서도 박근혜는 탄핵의 신세에서 벗어날수가 없게 되었다. 죄에 벌을 가하는 법의 리치대로 하면 박근혜는 열번도 더 탄핵대상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여론은 박근혜가 퇴진당하고 구속당해야 한다는 것이 다. 어른들도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도 말하며 진보도 말하고 보수도 말한다.

최근 남조선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이상에 달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근혜를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

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 한 응답자도 76.5%에 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의 《공크리트지지층》으로 불리워 온 60살이상의 늙은이들속에서도 년의 구속수사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지역에서도 주민의 58.6%가 박근혜 구속을 요구해나서는 판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대세가 탄핵인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보수언론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언론들도 박근혜의 특대형 부정추문의혹을 경쟁적으로 들추어내며 탄핵여론조성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지난 시기와의 사뭇 다른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다.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수 없는 남조선에서의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은 온 세계의 관심과 조롱거리로 되어왔다. 이제는 세인이 한결같이 박근혜를 엄청난 부정추문사건을 저지른 《꼭두각시대

통령》,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퇴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상천인 미국까지도 박근혜를 이미 죽은 목숨으로 대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남조선 사회와 세계의 여론은 이처럼 박근혜 탄핵을 당연한 것으로,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최후 발악하고 있지만 대세는 돌이킬수 없게 되었다. 그를 동정하고 《지지하여》 나서는 것은 사물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일부 늙다리보수강패들, 박근혜가 죽으면 자기들도 따라 죽을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뿔겨지 들뿐이다.

반면에 박근혜를 탄핵의 시궁창에 내모는 힘은 너무도 강하다. 온갖 불의와 악의 대명사이면서 도 다 늙고 맥빠진 박근혜가 탄핵의 거센 힘, 정의의 역센 힘에 떠밀려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내려 오고 손에 수갑을 차는 것은 달리는 뿔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남관계를 마사놓은 대결광의 종착점

남조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남조선의 《대통령》 탄핵문제는 북남관계에서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죄악중의 하나가 극도의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지금과 같은 파국의 국면에 몰아넣은 죄악이고 그로 해서 역도는 더욱 민심의 중요를 받고 탄핵의 무대에도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6.15의 옥동자이고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해버린 최악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민족이 화해하고 뜻과 힘을 합쳐야 통일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안아올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소중한 사업이었다.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도 경제적탄

에 앞서 《분단민족의 한 성원으로로서의 통일사명감》을 안고 공업지구에서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심경을 터놓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것을 돈으로만 사고하는 미친 박근혜 《정권》은 북남관계의 그 한가닥 숨줄기마저 끊어놓아 화해와 협력사업을 통째로 망쳐놓고 전쟁위협만 한것 고조시키었다.

이뿐이 아니다.

안으로는 통합진보당과 같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통일예국단체들을 《중북》의 감투를 뒤집어쓰워 탄압하고 각계층의 통일회합과 통일운동을 차단하였으며 밖으로는 외세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동족에 대한 고립압살에 피눈이 되어 날런것도 박근혜역적패당이다.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협을

질게 드리운것 역시 역적패당이 저지른 용서 못할 죄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 함께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대규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굉음을 끝끝내 울리는것으로써 조선민족의 평화지향에 찬물을 끼얹고 겨레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해나서고 있다. 친미호전분자인 박근혜에 의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더 증대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앞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만고역적이 탄핵심판의 단두대에 올라 마지막숨을 몰아쉬게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최는 지은데로 간다고 온 겨레의 저주를 받는 박근혜역도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상 가장 수처스러운 파멸의 운명밖에 없다.

리어금

지난 2월 20일 남조선 《통일연구원》이 《통일에측시계》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시계는 두가지 즉 《합의형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통일시계》로 되어 있는데 《12시에 다가갈수록 《통일환경》이 좋아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표시》 하는것이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2009년부터 해마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전문가》들과 북남협력교류관계자들, 대학생, 일반주민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북남관계와 통일문제, 군사 및 대외관계문제 등의 12가지 물음에 기초하여 《통일에측시계》를 만들어 발표해오

고 있다. 물론 이 시계는 제대로

된 시계가 아니라 비뚤어진 《흡수통일》 시계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통일에측시계》는 시간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후퇴한것으로 나타나 《통일외교》나 《북붕괴추진》을

통해서도 이른바 《흡수통일》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하였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의 《통일전략》이 실패한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된게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예당초 박근혜가 통일문제의 자주적이며 민족대단결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동족과는 대결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추

공화국을 각방으로 압박하고 제재하여 《붕괴》를 통한 《체제통일》을 기도한것자체가 어리석은것이였다. 뿔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박근혜는 시간만 낭비했고 저에게 돌아온것은 극도의 대결광, 반통일분자이라는 치욕의 락인뿐이다.

역도년의 지난 4년 《치적》이 모든 분야에서 파란과 위기, 혼란만을 가중시켜온 범죄의 4년이라는것이 남김없이 확증되고 박근혜가 파멸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통일에측시계》는 《흡수통일》은 이룰수 없는 망상이며 동족대결에 미쳐달뛰다가는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통일에측시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림 종 에 처 한 악 녀 의 라 상 을 본 다

지금 세상사람들앞에는 훌쩍 벌거벗은 청와대악녀가 서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몸을 송두리채 드러내채 아무런 수치심도 창피도 느끼지 못하고 태연자약하게 미소짓는 박근혜, 그 역스러운 몸골을 보노라면 남조선이 원시시대로 한참 돌아간것 같고 인류가 생겨나기 이전의 털부숭이

초불로 비쳐진 더러운 알몸

초불은 어둠을 밝혀준다. 수개월째 천수백만명의 참가하에 활활 타오르고있는 초불, 남녘의 어디서나 보이고 모두의 손에 든 초불은 지금껏 가리워지고 은폐되었던 어둠과 칙칙하고 썩어문드러진 모든 실체들을 들추어내며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한 《정권》이고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한 사회였는가를 날낱이 고발해 주고있다.

언론이 밝힌 추문내용들, 특검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 부역자들이 실도한 증언, 차고넘치는 각종 범죄증거물들...

그것이 밝혀준 진실은 무엇인가.

3년 수개월이 지나 투쟁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박근혜 《정권》이란 《최순실공화국》이었다.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박근혜는 옷을 벗겨보니 한갓 선무당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연설문도, 회의발언문도 최순실이 고쳐써준것이었고 청와대비서관들, 장, 차관들의 임명, 해임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뻗쳐있지 않은데가 없었다. 외교, 안보를 비롯한 최대의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문건들도 최순실의 손에서 다듬어졌고 해외행각일정, 몸치장까지 모두 최순실이 판장했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써준대로 말하고 그의 지시봉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고 지어 그가 입이라는 옷만 입을 한갓 인형에 불과했다.

꼭두각시, 인형에게는 머리가 없다. 형체만 있을 뿐 뇌수가 없다. 올림머리를 자주 튼 박근혜의 그 머리는 알고보니 너무도렁 텅 빈 인형조각이었다. 남이 써준것밖에는 말할줄 모르는 천치, 자기의 무식, 무능이 드러날가봐 장관들도 한번 안 만나고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수첩대통령》.

그는 《준비된 녀성대통령

인원을 보는듯 하다. 벌거벗은 악녀, 이것은 한갓 그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도 아니요, 세상사람모두가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악해하는 박근혜의 기괴한 몰골이다. 말그대로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모 든것을 속속들이 알게 해 주는 벌거벗은 악녀 박근혜의 역겨운 자화상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되어서는 안될 알짜 무식쟁이 강통 《대통령》이었다. 그런것을 《대통령》이라 불러왔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4년전 수많은 남녘민중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욕성을 들었다. 그러나 년의 집권 4년은 모두의 삶을 짓밟고 꿈과 희망마저 처참하게 앗아간 악몽의 4년이었다. 청년들은 더는 포기할것이 없는 《N포세대》로 전락하고 사회고 희망을 엿을수 없어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나서고있는 판이다. 자살률은 세계최고로 치솟고 《헬조선》, 《탈조선》은 오늘의 남조선을 상징하는 유행어로 되었다.

박근혜가 만들어온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 백성들의 괴담과 죽음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그러니 《이 청와대비서관들, 장, 차관들의 임명, 해임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뻗쳐있지 않은데가 없었다. 외교, 안

100여년전 섬오랑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백의민족 누구나 망국을 통탄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을 했다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국민주권》을 선무당에게 빼앗기고 《국정》이 붕괴된 참혹한 현실을 통탄하며 분노의 초불이 밤하늘을 계속 밝히고있다. 모든것이 뒤죽박죽되고 참혹하게 유린된 《대한민국》, 《망한민국》을 만들어온것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였다.

초불이 비친 박근혜는 그 머리는 알고보니 너무도 령 텅 빈 인형조각이었다.

박근혜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50여개의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은 《가족회사》를 꾸리고 퇴임

날까지 초불을 들자.》며 날이 갈수록 투쟁의 도수를 계속 높이면서 보수세력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있다.

그동안 친미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박근혜탄핵제관을 지연시켜보려고 잔꾀도 부리고 탄핵반대집회란동도 벌려놓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을 붙여 키질하는 격이 되어 사회적비난과 고립을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탄핵지시세력의

이후에 쓸 비밀자금을 불려온 박근혜이다.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돈을 냈다. 욕심도 어지간해야겠는데 600억원을 뜯어내는것도 성차지 않아 대기업 우두머리들을 대면하여 너무 작다, 1000억원을 내라하며 호통친 《현대판 변학도》가 치마두른 박근혜였다. 그 돈이 다 어떤 돈이겠는가. 그대로 노동자들의 피땀이고 그만큼 자본의 착취는 더욱 악착해진것이다. 지금 남조선각계가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을 끊겠다며 욱욱 대고있는것은 우연치 않은것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공주》로 내세우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기저기 압력을 행사하며 부정환 돈을 긁어모았으니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를 등치고 민생을 파괴하면서 정유라만을 살찌게 해온 《대통령》이었다.

박근혜는 해외나들이를 갈 때마다 갖가지 색깔과 문양의 치마저고리를 갈아입으며 얼굴에 화사스러운 웃음을 끈질 띠우기도 하였었다. 그 치마를 벗겨보니 그 알몸뚱이는 독사였다.

법원을 내세워 합법적정당을 강제해산해치운 파썸적만행도 알고보니 청와대악독사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 그 독이발에 물려 피를 흘린것이 어찌 이 정당뿐이겠는가. 《블랙리스트》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도 알수 있는것 처럼 자기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고 하여 근 1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음으로양으로 박해탄압해온 이 정독한 파썸광이 박근혜였다. 《국민대통합》이란 허울뿐이고 민중을 적, 아로 나누어놓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력, 남조선인민들의 대다수를 《종북》으로 몰아대며 박해해온 박근혜의 파썸통치는 그대로 《유신》독재부활과정이었다.

초불로 더욱 드러난 박근혜의 정체는 외세굴종의 화신이고 동족대결의 미치광이였다.

력대로 민심을 등진 남조선의 독재자들은 침략적인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고 제 민족, 동족에게는 사나운 이리가 되어 물어뜯지 못해 안달아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의 그 특등매국기질, 동족대결기질

지지불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에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지지불은 땅바닥에 곤두박

에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에 《싸드》 배치,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퍼줄것은 다 퍼주고 정작 퍼를 나눈 동족과는 대화도 필요없고 오직 제재와 압박의 채찍만이 필요하며 집권 수년을 동족대결로 허비해온 박근혜였다. 박근혜의 이런 망한다.》고 쏘라다 질한게 최순실이었다. 박근혜가 민심의 탄핵을 받는데는 북남관계를 파국상태로 몰아간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대북정책의 가장

스스로 알몸을 드러낸 망신녀

얼마전 《더러운 잠》이라는 자기의 라체그림을 《국회》청사안에 전시하였다고 박근혜는 부역자들을 내세워 《대통령의 신체모독》, 《녀성 인권에 대한 침해》니 뭐니하며 법에 소송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누구를 욕할것도 없다. 창피도, 수치도 모르고 알몸뚱이를 말짱 드러내고있는 추물이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일진대 무슨 《모독》이고 《침해》란 말인가.

사람이 죄를 짓고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으면 자중하고 머리를 수그리는 것이 상책이다. 더우기 박근혜가 저의 죄가 어디 보충의 죄인가. 하나하나가 만인이 격분에 치를 떨게 하고 백번 탄핵받아 마땅한 큼직큼직한 죄목들이 다. 《국회》가 탄핵리유로 내세운 가지수만도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처럼 머리를 계속 뺨뺨이 쳐들고 민심에 대항고 파렴치한 궤변만 늘어놓아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고 인간추물로서의 제년의 속물적근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는 박근혜이다.

남녘민심과 세인이 지켜보는 특검조사와 탄핵심리과정 통해 박근혜는 자기가 어떤 년인가를 여지없이 말짱 드러내었다.

그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사람이 아니였다.

누군가는 얼굴이 붉어지는것은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얼굴을 붉힌다는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말이고 랑심과 체면이 있다는 표현이다.

박근혜는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악마이다. 죄

큰 성과》라고 추켜올리고 있었으니 박근혜의 《대북정책》이라는것은 결국 북남관계를 망쳐버리고 통일을 하지 않기 위한 반민족적 정책이라는것을 다시금 알수 있다.

초불민심에 의해 홀랑 드러난 박근혜의 몰골, 그것은 프로포폴이니 보톡스니 하는 약물에 중독되어 누렇게 뜨고 부석부석한 얼굴, 부패에 병들고 독재에 썩어들어 말라비틀어진 몸뚱이, 동족대결과 친미사대가 뼈속의 구석구석에 배인, 말그대로 다 파먹은 김치독같은 흉물스러운 로구였다.

를 짓고도 수치도, 부끄러워할줄도 모르고 오히려 제편에서 성이 나서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

자기의 죄과는 다 언론과 검찰이 지어낸 거짓이고 지금의 탄핵사태가 《거짓으로 쌓아진 커다란 산》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추물이 바로 박근혜이다.

두고두고 력사와 인민이 용서 못할 특대형죄악을 저지르고도 뉘끝만 한 죄의식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초불민심이 잘못되고 그것은 《민심이 아니》라고 철면피하게 강변하는 악녀가 역시 박근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때문에 정치적파국과 혼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추운 겨울날 수십, 수백만명의 남녘로소가 초 불을 들고 찬바람 부는 거리에 나와 《박근혜퇴진》을 계속 웨치고있다. 그 집회는 벌써 20번째로 육박하며 서울만이 아니라 온 남녘의 곳곳에서 열리고있다.

인간이라면,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저때문에 초래된 파국적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쇠고 랑을 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기는 고사하고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돈을 보수떨거지들에게 뿌리며 맞불집회소동을 일으켜 초불을 꺼보려고 일광하는것이 미친 청와대악녀 박근혜이다.

박근혜에게는 인간사랑의 감정이라는것이 추호도 없다. 원래 박근혜는 인정이 너무도 메마르고 표독스러워 차디찬 《얼음공주》로 불리워왔다. 그러나 그렇게 차고 뜨거운것이 전혀 없는 맹렬한, 악귀중의 악귀가 박근혜

이 서로 상대방을 《배신자》로 공격하며 개싸움을 벌려 사회각계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었다. 저들의 썩은 정체를 가

라는것을 사람들은 미처 다 몰랐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수장되어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선체의 벽을 손톱으로 긁던 그 처절한 순간 자기는 달나라사람인듯 태연자약하게 관저의 침대우에 드러누워 무려 7시간동안이나 제 얼굴의 성형수술을 하며 탄장을 보았을 때 벌써 그는 살인살녀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도 《피눈물이 무엇인지 오늘에야 알았다.》고 너두리를 늘어놓은 박근혜, 그가 말한 《피눈물》은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피눈물이 아니라 순수 자기만을 위한 《피눈물》이였다. 《대통령》직무를 정지시킨 《국회》와 언론, 검찰, 초불민심에 독이발을 가는 《피눈물》이였다. 자기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든 모든 세력을 《대통령》직무를 다시 수행하면 철대로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증오와 복수심의 《피눈물》이였다.

저 하나때문에 《세월》호 아이들이 비롯하여 술

한 사람이 생죽음을 당하고 수백수천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왔고 지금도 흘리고있는데 그런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눈물》 너두리만 늘어놓은 박근혜가 과연 사람이 옳긴 옳은가.

사람이 아니라 인두검을 쓴 악마일뿐이다. 그는 민중을 철저히 배신하고 룹멸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진보이건, 보수이건, 중도이건 리념에 관계없이 다 박근혜를 원망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절규하고있는데도 년의 배신의 정치, 민중을 한갓 머슴으로만 알고 온갖 악정을 저지르는데 대한 국민적 원성을 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기는 고사하고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돈을 보수떨거지들에게 뿌리며 맞불집회소동을 일으켜 초불을 꺼보려고 일광하는것이 미친 청와대악녀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어리석고 아둔하며 비겁한 천치바보이기도 하다.

자기의 탄핵이 눈앞의 일로 다가오게 되자 급해맞은 악녀는 특검조사내용이 《거짓말로 쌓아올

린 산》이라고 뻔대며 얼마전에 있는 최중변론이라는데서도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후백을 전도해나섰다.

그런다고 제 뜻대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인이 저주하는 최악의 목숨은 오래 끌어야 저도 고통이고 그럴수록 제 싹통에 제가 물러앉게 되는 날만 앞당긴다는것을 녀은 아직도 잘 모르는것 같다.

박근혜가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낸 최후진술이라는데서도 몸서리칠 자기의 갖은 죄악을 부인해나선데 대해 남조선 언론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궤변의 극치이다.》, 《무책임과 비인간적태도에 다시한번 몸이 떨린다. 이제 이런 꼴을 보는것도 마지막이라는데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고 비꼬았다.

살겠다고 발버둥칠수록 파멸의 수령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것을 박근혜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 * 벌거벗은 박근혜는 이처럼 추악하고 너절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악녀중의 악녀이다.

세상천지 어디 가서 이런 악녀를 다시 볼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붓대를 다 동원한들 이런 인간오작품을 어찌 형상해낼수 있으랴. 고금동서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인간의 리성으로는 상상할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이런 악녀가 조선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치욕이라 해야 할것이다. 박근혜는 애당초 이 땅에, 인간세상에 태어나지부터 말았어야 했다. 그의 정치인생은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이고 재난의 화근이며 민족의 망신거리이기도 하다.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이미 박근혜탄핵의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누구도 거스룰수 없는 지상의 명령이고 력사의 부름이다.

흉물스러운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낸 천하악녀 박근혜년이 마지막숨을 몰아칠 날은 이제 며칠밖에 안남았다. 흉물스러운 악녀가 내치르는 최후의 비명소리가 초불너머로 들려오는 3월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수, 김진태를 비롯한 악질보수분자들은 민심의 준엄한 철폐가 제 머리를 겨누고있는줄도 모르고 박근혜의 너절한 파수군이 되어 박근혜탄핵반대란동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의 망동은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새 사회, 새 정치를 갈망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최후발악하는 보수세력들을 기어이 쓸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종말을 예고받은 력사의 퇴물들

질당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보수세력들은 분당과 당명바꾸기놀음을 벌리며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동은 자기 수명을 다 산 력사의 퇴물들의 마지막발악일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느니,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와 결별하고 국민편에 섰다.》느니 뭐니 하면서 서로 물고뜯는 추악한 싸움을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녹여보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박근혜공범자로서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범죄집단이다. 그 어떤 수법으로도 파멸에로 줄달음치는 저들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

게 되자 보수세력내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울중에 걸린 것 같다.》, 《대선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다.》며 저들의 암담한 처지를 한탄하는 아우성소리가 날을 따라 울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이 하루하루 다가오며 따라 보수세력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지금까지 벌어진 대중적인 초불투쟁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몇몇 특정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반역과 악정, 부패의 온산인 보수세력을 영원히 매장하려는 민심의 격노한 불길이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초불은 〈정권〉 교체 를 바란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민심의 반핵지향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판결도 이미 마무리되고 이제 《탄핵인용》이나 아니냐의 선고만 남아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한주일 남짓정도 있으면 탄핵심판결정이 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선무당 최순실과 작당해서 온 남녘땅을 온갖 부정과 부패의란 무장으로 만든 집권자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는 인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박근혜탄핵은 역사의 정의이다. 지난 4년을 경과해오면서, 특히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통하여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권력형부정부패의 상징, 모든 사회악과 불의의 대명사로 낙인되었다.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시기 아무런 공적도 없는 정윤희가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를 리용하여 정치를 제멋대로 통락해 온 정윤희 《국정》개입사건, 온 남조선명을 경악케 했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중사건, 이번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 등 어느것 하나 박근혜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란 없다. 특히 이번 특대형추문사건의 경우 들추면 들출수록 구린내나는 청와대

악녀의 만고죄악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의 지나온 집권행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의 연속이었다.

남조선집권자는 민중을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저 하나만의 권력야욕, 부화방랑과 치부를 위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 농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았으며 반항하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와 같이 무참히 살육하였다. 박근혜의 악정하에서 바다에 빠진 수백명의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원한서린 눈을 감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더욱 죽이는 로동관련법제정을 반대하고 람육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를 부르짖으며 초불을 추켜들었고 드러오지 못까지 몰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은 쌀값인상 등 생존수호를 절규하고있는것이다.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에게만 특별혜를 주는 썩은 교육현실을 개혁하자며 초불바다에 뛰어들고 빈민들과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여 분노의 함성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세월》호유가족들은 수백명의 자기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진상을 밝혀라며 초불

의 광장에서 울분을 다시 토해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사상 유례없는 동족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었다. 《대화》는 필요없고 북에는 오직 《제재와 압박》만을 가해야 한다고 고야대며 박근혜는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림으로써 북남관계의 마지막명멸까지 끊어놓았다.

오늘 남조선의 거리거리에 흐르는 거대한 초불의 대하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박근혜 《정권》의 4년간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모든 사회악과 불의의 상징인 박근혜에게 응당한 징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가 정의로 이기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집권자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백남기》들을 두번 죽이는것이고 《세월》호에 갇혀 바다에 수장된 수백명의 아이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죽으라》는것이며 박근혜없는 세상을 웨치는 수천만 인민들의 피라는 절규에 침을 뱉는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것은 남녘의 민심이다.

지금 남조선의 초불의 광장들에서 박근혜탄핵을 웨치고있는것은 특정계층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전인민적인 초불투쟁에는 로동자, 농민, 대학생, 학자, 공무원, 기업인들은 물론 나 어린 초등학생들과 유모차를 앞세운 아기어머니들까지 무려 연 1400만명이상이 참가하였다 한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박근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99%의 국민이 초불을 들고 일떠섰으며 동포들이 사는 해외의 곳곳에서도 매일같이 초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78.3%가 박근혜탄핵에 찬성하고있으며 탄핵이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76.5%로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다 한다. 그리고 설령 《탄핵기각》이 된다고 하여도 70.1%가 《대통령직복귀》를 반대해나서고있다 한다.

지금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절규하는것은 박근혜탄핵과 함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재난만을 강요하는 썩고 부패한 모 든것의 청산이다.

청와대악귀들을 징벌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민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남녘민중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정의와 진리의 힘은 불의와 매국의 힘을 압도하고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민심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맞불집회, 쿠데타위협으로도 되돌릴수 없는것이 참다운 인간사회를 지향하는 남녘민심의 거세찬 흐름이다.

파멸의 낭떠러지에 선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반인민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죄악만을 저질러온 청와대악녀가 자초한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해나가는 남녘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악녀를 기다리는 단두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운운하던 박근혜는 준비가 전혀 안되고 《대통령》이 도저히 될수 없는 천하 무지하고 무능한 악녀였다.

박근혜는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대결망언들을 수두룩하게 쏟아내고 미국상정들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다 못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북남관계를 완전도둑내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말그대로 박근혜 《집권》

4년은 《사년(四년)이 아닌 사년(死년)》으로 되여버렸다.

최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남조선의 초불투쟁마당에 박근혜를 처형할 단두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박근혜를 포승줄로 묶어 죄인취급하는 상징물들이 늘어나고있는것도 남녘민심의 반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도저히 용서 못할 가지가지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 다. 인민들이 탄핵의 마지막심판장에서 들고 박근혜를 기다리는것은 그의 목에 맬 포승줄이다.

이에 질겁한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은 탄핵기각을 노린 《박근혜자진사퇴론》을 내들리는가 하면 《폭동》이니, 《내란》이니, 《피바다》니 하고 공

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실날같은 잔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민심의 저주와 증오를 받는 역도년의 비참한 말로는 다르게 될수가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특검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외면하고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발악에 놀리워 탄핵을 기각시키 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 다. 인민들이 탄핵의 마지막심판장에서 들고 박근혜를 기다리는것은 그의 목에 맬 포승줄이다.

이에 질겁한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은 탄핵기각을 노린 《박근혜자진사퇴론》을 내들리는가 하면 《폭동》이니, 《내란》이니, 《피바다》니 하고 공

본사기자 현은경



최에는 벌이 따르는것이 인륜법도이며 정의와 진리이다. 그래서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죄악의 씨앗을 심고 덕의 열매를 따먹을수 없다.》는 말도 생겨났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보아도 역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자들에게는 폐의없이 언제나 단호하고도 준엄한 징벌이 차려졌다.

《승리자에게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호통치던 전쟁파쇼광에게도 종당에는 파멸의 무덤속운명이 차려진 사실도 역사의 폐지들에게는 기록되어있다.

남조선에서 만고역적 리승만과 파쇼독재자 박정희의 말로가 그처럼 비참하였던것도, 전두환이나 로태우를 비롯한 군사강패들이 역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힌것도 지은 죄로 하여 역사와 민심이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정의의 진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역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박근혜의 죄를 감싸주려는 몇몇 안되는 우익보수세력들의 해피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무죄를 주장하던 고용법률대리인단 것들은 청와대악녀의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자 《탄핵재판의 공정성》문제를 걸고드는가 하면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위협해나서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와 《박사모》를 비롯한 한중도 안되는 우익보수맹거지들도 초불투쟁에 나선 각계층인민들을 《종북세력》, 《빨갱이》로 모독하고 지어 인터넷에 《좌경빨갱이무리를 처단할것》이라는 악의에 찬 글들을 무더기로 게시하면서 초불민심을 《백색테러》할 흉심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악의에 찬 발악이며 대세의 흐름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조차 없는 극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정치저능아, 정치강패들의 단말마적분무림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패거리들이 아무리 악

을 써도 현 위기를 가실수 없으며 머지않아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수밖에 없다.

그것은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역사와 인민이 내리기때문이다.

민심은 이미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회세의 정치협잡꾼이고 독재광이며 인간추물인 박근혜

를 기어이 퇴진시키고 역사의 준엄한 징벌을 안기코야말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지금 제가 썩 통우에 주저앉은 꼴이 된 박근혜의 가련한 처지는 바로 그가 지은 천만가지 죄악의 응당한 대가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 역대 통치배들을 훨씬 능가하는 만고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제손으로 죽음의 함정을 깊숙이 판으며 비참한 종말의 시기를 1년이내 앞당겨놓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이 《끝장내자 박근혜집권 4년》을 웨치며 한결같이 박근혜탄핵투쟁

남조선 《문화일보》에 의하면 2월 23일 남조선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역도년의 집권 4년간 죄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은 역도년의 사대매국적, 반인민적, 반통일적정치를 13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통략행위를 가장 잘못된 정치로 자료집은 평가하였다.

자료집은 《대통령》이 퇴물을 받고 검찰수사대상이 되어 탄핵의 운명에

남조선야당이 역도년의 4년죄악을 담은 자료집 발간

처하였으며 《세월》호참사, 조류독감과 구제역확대, 메르스사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실하였다고 밝혔다.

가정들에서 진 빛과 실업률이 역대 최대, 최악의 수준에 이르게 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데 대해서도 자료

집은 지적하였다.

자료집은 개성공업지구를 결판내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일본과 성노예문제를 《합의》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 등 반통일적이며 사대매국적인 정책들을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타

이날 자료집발간과 관

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실패는 통계자료와 기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남조선사회가 기만당하였고 국민도 속았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현 《정권》이야말로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정》통략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죄와 벌

적장치들이 그대로 환원복귀되어 제2의 《유신》독재가 구축되고 파쇼의 서슬푸른 칼부림속에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강리대 말살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이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당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기여한 의로운 인사들이 검거투옥되는 황포무도한 폭압판동이 레상사로 되었다.

《세월》호대참사로 하루아침에 생애같은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는 유가족들이 《시제장사군》, 《란동군》

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박근혜로 말하면 집권기간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인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용서 못할 범죄자이다.

몸뚱아리는 비록 현제에 있어도 넓은 아득한 《유신》시대에 두고있는 박근혜에 의해 남조선에 세인을 몸서리치게 한 군사독재시기의 법적, 제도

으로 모욕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던 농민이 천인공노할 파쇼적폭거로 사경에서 해매이다가 끝내 숨을 거둔것도 박근혜의 반역정치가 가져온 비극적산물이다.

박근혜가 저지른 죄악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중에서도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대죄악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 《드레즈덴선언》, 《통일대박》 따위의 해피한 분렬각본, 대결창안품을 꾸며내어 통일의 대로에 빗장을 질러대고 이 나라 강도를 영구적으로 갈라놓기 위해 군사분계선전구간에 콩크리트장벽을 쌓아놓은 예비박정희역도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통가하여 북남관계를 인적, 물적교류의 완전차단과 총포란이 오가는 핵전쟁발발직전의 함시적인 위기국면에 몰아넣은 회세의 대결악마가 박근혜였다.

불과 4년밖에 안되는 집권기간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이 지은 죄를 훨씬 능가하는 박

근혜에게 남조선민심이 분노의 초불을 추켜들고 탄핵투쟁에 떨쳐나선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의 종말은 그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미국상전도 결코 건져주지 못할것이다.

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박근혜탄핵사태를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극우보수세력들을 정신병자무리로 낙인하고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계집권가능은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남조선민심은 단순히 박근혜탄핵이 아니라 그를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는것이다.

지난해 청와대의 지적에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근혜를 무덤속에 내던진 《청와대상여》가 거리를 누비고 역도년의 목을 잘라버릴 단두대가 등장한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고있는지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제 박근혜가 갈 곳은 역사의 무덤속에 없다. 처량한 장송곡이 울리는 속에 청와대악녀의 판부정을 털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서북청년단》의 유령이 떠돌아

남조선에서 민심의 강렬한 요구와 열망으로 하여 박근혜에 대한 탄핵결과는 눈앞의 일로 박 두해왔다. 그에 따라 이를 막아보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라는 것을 벌려놓은 보수패거리들은 박근혜에게 죄가 없다는 저들의 억지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북의 지시를 받는 빨갱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으로 쏘아죽여야 한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년의 탄핵과 관련한 립장을 밝히라고 강박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있는 정도이다.

초불투쟁력을 《종북세력》, 《빨갱이》로 몰아대다 못해 《특검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모험물로 형성한 특검관계자들의 목을 매달고 가족들에게 신변위협을 가하는것도 가리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에게까지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가하고 집회장 주변의 상점, 식당들에 집단적으로 밀려들어가 란장판을 벌리는 등 광기를 부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인터넷에 《탄핵은 역적행위이기때문에 군법으로 응징해야 한다.》, 《좌경빨갱이 무리한데 경고한다. 처단할것이다.》는 악의에 찬 글들을 무더기로 게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테로하기 위한 《암살단모집》이니, 《할복단모집》이니 하는 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물론 몇푼의 돈에 홀려워 거리로 끌려나온 인간 쓰레기들이니 타당한 논리나 주장도 없이 막말과 폭언, 폭행이 표현방식의 전부인것은 당연하다. 날로 더해지는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광증은 흡사 리승만통치시기 악명떨친 《서북청년단》의 망동을 그대로 보는 듯 하다. 반세기도 아니고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서북청년단》이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를 떨고있다.

그것은 《서북청년단》이 친미극우세력의 돌격대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을 탄압, 테로하는데 앞장섰던 정치깡패이고 수많은 남조선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야수의 무리였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근혜의 더러운 범죄를 끝까지 밝혀낼것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강렬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사기간연장을 신청하였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손때 묻은 주구인 황교안은 이를 무작정 거부해버리었다. 이것은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의 황교안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황가로 말하면 박근혜의 치마폭에 싸여 남조선의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해먹으면서 역도년의 지령에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정윤희 《국정》 개입 사건을 덮어버리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나선 특대형모략사건의 장본인이고 주범이다.

반세기도 아니고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서북청년단》이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를 떨고있다. 그것은 《서북청년단》이 친미극우세력의 돌격대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을 탄압, 테로하는데 앞장섰던 정치깡패이고 수많은 남조선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야수의 무리였기때문이다.

《그년에 그놈이다》

지금 남조선 전역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있는 황교안의 특검수사기간연장거부보 하여 죽가마쳐려 꿩고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된 특검수사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많은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는 가운데 최순실과 김기춘, 여러 청와대 비서관들과 전, 현직장관 등 특대형추문사건의 주범들과 공범들이 적지 않게 구속되었다. 얼마전에는 정경유착의 핵심고리의 하나인 삼성그룹 부회장 리재용도 끝내 구속되어 특검에 대한 남조선인들의 기대가 한층 더해졌다. 하지만 특검수사가 충분히 진행된것은 아니다. 박근혜와 대가연들간의 검은 유착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혐의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근혜의 더러운 범죄를 끝까지 밝혀낼것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강렬한 요구를 반영하여 수사기간연장을 신청하였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손때 묻은 주구인 황교안은 이를 무작정 거부해버리었다. 이것은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의 황교안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황가로 말하면 박근혜의 치마폭에 싸여 남조선의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해먹으면서 역도년의 지령에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정윤희 《국정》 개입 사건을 덮어버리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나선 특대형모략사건의 장본인이고 주범이다.

이런자가 여직껏 《총리》 감투를 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온것 자체가 남의 초불민심을 심히 우롱하는것이였다. 《바지입은 박근혜》나 같은 황교안이 역도의 죄상을 더욱 발가놓는 특검의 기간연장을 승인해 줄리 만무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행여나 했더니 역시 그년에 그놈이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끌려가야 할 특등범죄자》, 《력사의 대죄인 황교안을 탄핵이 아니라 사형하자》 등 분노를 터치고있다. 초불민심에 전면도전해나서고있는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자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이 내리는 징벌의 철추를 절대로 피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성조기집회,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

남조선에서 맞불집회라는데서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이고있는 괴이한 광경을 보며 남조선각계가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있다. 남조선의 《뉴시스》는 《이런 《성조기물결》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고 전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리성찬은 《광우병시위도 아

니고, 도대체 국정통단사태에 미국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뚱맞게 성조기를 들고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여기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51번째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건지 도저히 리해가 안된다.》고 비난하였다. 가정주부인 정다운은 《태극기를 내세워 탄핵반대를 웨치는것도 언짢

은데 왜 남의 나라 국기까지 들고다니는지 황당하다. 태극기집회가 아니라 성조기집회라고 불러야 하는거 아니냐.》며 《8살짜리 아들도 보도를 보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조기를 들고있냐.》고 물어보는데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거리》라고 개탄하였다.

본사기자

피를 부르는 악녀의 《회답편지》

얼마전 박근혜는 자기의 생일을 계기로 보내온 편지들에 《회답편지》라는것을 보냈다고 한다. 물론 편지는 《박사모》니, 《어버이연합》이니 하는 한줌도 안되는 보수떨거지들이 몇자 끄적거린것이다. 가관은 초불민심의 탄핵기운에 《숨쉬는 미이라》로 청와대구석에 박혀있던 박근혜가 뻔뻔스럽게 보낸 《회답편지》의 내용이다. 《고맙다.》, 《격려가 된다.》, 《감사하다.》는 것이다.

《고맙다.》? 가장 추악하고 너절하고 비루한 자기편지를 편들어주는 늑대리 할망구, 할애비들이 참고맙다는 소리다. 자기를 대신해서 《빨갱이를 죽이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피바다》 등 듣기에도 소름끼치는 망발들을 부르짖으며 《암살단》까지 조직하려는 수구팔통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것이다. 《격려가 된다.》? 특검도 증지되었고 이제 탄핵도 기각된다면, 하여 자기의 권력이 재생하게 되면 수구보수의 기대에 보

답하겠다는 악담이다. 탄핵기각이 되면 《유신》 동풍이를 다시 휘둘러 초불을 든 국민들, 탄핵을 추진했던 민중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 그들을 대상으로 피의 전쟁을 벌려겠다는 양심의 표현이다. 종말에 이른 순간까지도 보부의 독이발을 갈며 피비린내를 풍기는 박근혜의 《회답편지》는 초불민심으로 하여금 독사단매에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있다.

김장호

